

# 민주 “대장동 의혹은 국힘 게이트…실체 끝까지 파헤쳐야”

### 국회의원·검사·변호사 한통속 비리 사건…검·공수처 철저 조사를 ‘50억 퇴직금’ 광상도 의원 아들에 “희생양 코스프레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실체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역곡했다.

그간 대장동 의혹에 대해 말을 아껴 온 민주당은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잇따라 논평

을 내놓으며 당 차원의 공세를 본격화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곽 의원과 아들 정도의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개발 이익 앞에 개발업자의 선행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보좌관, 검사, 변호사가 한통속이 된 복마전 같은 초대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연루된 이들의 철저한 조사를 검찰과 공수처에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곽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의 ‘키맨’ 남욱 변호사와 경제부국장 출신 김만배씨를 만났다고 시인했다”며 “대장동 개발 특혜의 실수해자로 알려진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영 개발을 위해 정치권 로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남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산하이고, 내가 (국토위 소속) A의원의 D보좌관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며 “그가 거론한 D보좌관은 현재 국민의힘 김 모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현직 보좌진이 연루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애먼 ‘이재명 게이트’라며 덩터기까지 씌우려고 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의 아들 광병채 씨가 입장문을 내자 또 한차례 논평을 내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맹공했다. 곽 씨는 이날 논란이 확산하자

입장문에서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 뿐이다”라며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곽씨 스스로 화천대유의 운영이 비상식적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곧 곽 의원이야말로 화천대유 사태의 본질이며 몸통에 속한다는 점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씨가 받은 금액은 모든 임직원 상대로 지출한 퇴직금 합산액의 9.2배라고 한다”며 “부모 찬스 없이 성실히 일해온 청년들에게 박탈감마저 안겨준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광상도, 화천대유 논란에 탈당

### 김기현 원내대표 “무거운 책임감”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이 26일 탈당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유무는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들의 분양대금을 가로채기 위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서

야 그 누구든 어떠한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곽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7년여간 재직하던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채 씨와 곽 의원은 근본적 책임이 이런 사업 설계를 가능하게 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곽 의원 아들 사안이 “대선을 앞두고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연합뉴스



김기현, 긴급 최고위원회의 브리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및 광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등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선정국 국감’ 내달 개막…대장동 vs 고발사주 격돌

### 10월 1~21일 3주간 열려 코로나 대응·플랫폼 갑질도 이슈

국회가 내달 1일 3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대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다.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정국 현안을 두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대령 의혹사건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여야는 저마다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며 날을 버리고 있다. 사안의 흐름에 따라선 대선 지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 검찰’에 대

한 국감으로 치를 떼세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몸통으로 일찌감치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총공세를 퍼왔다.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원으로 추가 의혹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26일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들고나와 물타기 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묻힌 측면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행위를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최대한 파고들 태세다.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인으로는 이재명 지사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대장동 사업에서 거

액 배당금을 챙긴 투자자 등 17명을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다른 현안도 다양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재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산자위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갑질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쟁점이다. 문체위에서는 ‘연륜종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은 대다수 일만 상임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결심 상임위원 운영위·여가위 국감은 25~27일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 “광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대가성 뇌물 의심”

### 이재명 측, 野 특검 요구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6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국민의힘 광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를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관련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국힘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반박하며 대대적 역공을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선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0억 원은 원유철 의원의 고문료처럼, 박근혜 정부와 국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이 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국힘이 성남시장이었으면 예정대로 민영개발하고 5500억원도 다 해먹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캠프의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에 대해 “제

3자뇌물죄가 아닌지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제 분명해졌다. 국민의힘 세력이 토건 세력과 손잡고 대장동 사업을 먹잇감으로 삼았고, 이재와 들끓는 것을 우려해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며 “명백한 국힘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거듭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도 정치 쟁쟁화를 통해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면서 “이제 당 지도부도 이번 사안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 측 인사인 맛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SNS에 “화천대유-국민의힘 커넥션이 차츰 밝혀지고 있다. 이게 다 이낙연 덕 아니겠나. 캠프가 측제 분위기를”이라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경선 경쟁자인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사안으로 이 지사를 향해 문제 제기를 이어온 데 대한 지적이다. /연합뉴스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1) 40평(전용) <b>2억5천</b> (용1억) 보1천 월100	<b>광주에서 20분(6M도로접)</b>  <b>장성담 (호) 2분,</b> <b>장성 IC. 5분</b>  <b>총 1760평</b>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2) 60평(전용) <b>4억5천</b> (용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b>9억</b> 매가 <b>7억</b>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b>010-6670-9800</b>	<b>010-6670-9800</b>